



“겉옷을 가지고” (열왕기하 2:1-14)

■ 들어가는 말

어릴 적 자주 누구 흉내를 내보았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왕하 2:1-14)

1.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할 때마다 뭐라고 답합니까?

=> (2절)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뵈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뵈엘로 내려가니

(4절)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6절)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2.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무엇이며, 엘리사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 (8절)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3.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행합니까?

=> (14절)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4.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역사를 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정확한 언급이 없기에 내용의 흐름에 따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엘리사는 선지자의 탈진이나 의기소침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두 몫을 원했을 것입니다.

둘째, 상속권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갑절’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받을 때 장자가 받는 몫입니다’(신 21:17).

5. 나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 각자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 기도

나의 힘인신 여호와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도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